

이원재 제1차관, “구조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” 강조

- 23일 “제5회 콘크리트의 날” 기념식에서 기술인 격려·유공자 표창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월 23일(금)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“제5회 콘크리트의 날” 기념식에 참석하여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(7명)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하는 한편, 고품질 콘크리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였다.
- (사)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김지상 콘크리트학회장,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, 건설기술인, 업계 관계자 등 내·외빈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.
 - * 한국콘크리트학회 창립기념일(1989.6.24.)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‘19년부터 매년 개최
- 이 차관은 이날 치사에서 “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안전한 구조물 구현을 위한 기초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힘써줄 것”을 강조하면서,
 - 국토교통부에서도 “스마트 안전장비 지원, 안전 컨설팅, 안전관리비 개편 등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의지를 밝혔다.
 - 아울러, 한국콘크리트학회에는 “콘크리트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화, 고기능화, 자동화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6. 23.

국토교통부 대변인